

4. 미국에 의한 반도체 고율 덤핑 판정의 영향

- (내용) 미국이 현대전자와 LG반도체에 대해 각각 3.93%, 9.28%라는 고율의 덤핑마진을 판정을 내림
- (배경) 한국반도체 산업에 대한 견제심리가 상당히 커진 것이 그 배경임
- (영향) 이번 판정 자체로 인한 타격은 그리 크지 않으나 우려되는 것은 이번 판정이 유럽에서의 반덤핑 규제를 촉진하는 것임
- (과제) 해외 현지공장 설립을 위해 외자유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

□ 내용과 배경

- 미국이 현대전자와 LG반도체에 대해 각각 3.95%, 9.28%라는 고율의 덤핑마진을 판정을 내림
 - 덤핑마진은 해당 제품이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에 비해 얼마나 낮은 가격에 팔렸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출업자는 덤핑마진만큼 추가적인 관세를 물어야 함
 - 1992년 한국산 반도체가 덤핑혐의로 제소된 이후 매년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번의 덤핑판정은 1996년 5월부터 1997년 4월까지 1년동안 수출된 물량에 대한 판정임
 - 삼성은 1995년에 무혐의 판정을 받아 이번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음
 - 현대와 LG역시 최근 3년간 계속 미소마진판정(0.2% 이하)을 받아 이미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“재발가능성이 있다”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속 심사를 받아옴
 - 지난 3월 예비심사에서는 현대와 LG에 대해 각각 12.64%, 7.61%의 예비판정 내려졌었는데 이번 최종판정에서는 마진율이 현대는 떨어진 반면 LG는 오히려 올라감
- 예상과 달리 고율의 판정이 나온 것은 한국 반도체에 대한 견제 심리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임
 - 이번 판정에서는 다소 편법이 동원되었는데, 그것은 LG반도체에 대한 심사에서 LG가 직접 미국에 수출한 물량만이 아니라 LG는 제3국에 수출했으나 그 구입업자가 미국에 수출한 물량까지 대상에 포함시킨 점임
 - 편법까지 동원한 고율 판정의 배경으로는 한국 반도체에 대한 견제 심리의 확산을 들 수 있는데, 이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업체들의 점유율이 확대 추세이고(95년 32.6%, 96년 36.6%, 97년 35.9%) 올해 이후에는 점유율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임

- 이에 더하여 공급과잉 상태하에서는 덤핑 판정이 D램 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컴퓨터업체 등 D램 수요업체들에게 미칠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

□ 영향과 과제

- 직접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 영향을 받겠지만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한국에 대한 견제의 분위기가 유럽에까지 확산되는 것임
 - 원래 덤핑판정이 나면 대상기간동안의 수출물량에 대해 덤핑마진율만큼 관세를 내야 하며 향후 수출분에 대해서도 덤핑마진율만큼 관세를 예치해야 함
 - 과거 수출물량에 대한 관세의 경우, LG는 고율 판정이 제3자의 수출에 기인한 것이어서 면제 조치를 받았으며, 현대는 국제무역재판소에 제소할 예정이어서 여기서 판정이 날 때까지는 납부가 유예될 예정임
 - 향후 수출분에 대해서는, LG가 고율의 관세를 예치해야 하는 처지에 처했지만, 현대는 덤핑 마진율이 그다지 높지 않고 미국 현지공장인 오레곤주 유진반도체 공장이 본격 가동을 시작하여 타격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
 - 양사가 통합되면 관세상 인수업체에 적용되었던 것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보임
 - 이번 판정 자체가 미치는 영향을 실제로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나, 우려되는 것은 이번 판정이 유럽에서의 한국업체에 대한 견제 분위기를 돋우어 EC까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임
 - 유럽에서도 지멘스사에 의해 덤핑 제소 움직임이 이미 나타난 상황임
- 반덤핑 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해외 현지공장의 설립이므로, 외자 유치 등을 통해 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
 - 국제무역재판소, WTO 등에 제소하여 이번 판정을 철회시키기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함
 - 그러나 한국의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견제가 심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반덤핑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인 현지공장의 설립에 주력해야 함
 - 이미 현대와 LG 모두 영국에 현지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해 투자를 시작하였다가 자금난으로 투자를 중단한 상태임
 - 이들 공장의 건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, 국내 자금조달이 어려움을 감안할 때 외자유치가 필요하며, 이를 위해서는 국내 반도체산업의 구조조정이 하루속히 완료되어 국내 업체의 대외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임

(김창욱 cwkim@hri.co.kr ☎724-4044)